

2017년 5월 17일, 조천읍 와흘리 임완송 씨 댁, 강수경 조사.

임완송(남, 1933년생, 조천읍 와흘리)

- 줄거리: 와흘리의 옛 지명은 ‘논흘’이다. 이웃 마을인 대흘리의 옛 지명은 한흘이다. 와흘리에 강두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. 하루는 폭나무 있는 사거리에 앉아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이 한흘은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. 그러자 강두식 씨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여기로 쭉 올라가면 하늘이라고 하였던 우스갯소리가 있다.

**[조사자]** 여기는 논흘?

**[제보자]** 논흘. 지금은 와흘인데, 그때는 논흘. 논흘인데 또 기억도, 그 논흘 중에. 그전에 예. 그것이 훈 이삼십 년 거이 됐습니다만은, 어떤 분이 여기 폭남 잇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?

**[조사자]** 예.

**[제보자]** 여기 들어오는데. 어떤 사람이 넘어가다가 그 폭남 잇는 사거리에서 와흘에 강두식 씨라는 분을 만났는데. 나보다 훈나 원데. 그 강두식 씨보고 하는 말이 뭔고 허게 뭐든,

“저, 나 말 좀 물으쿠다예.”

겐,

“예, 무사마씸?”

“한흘 어떻, 어디로 갑니까?”

그렇게 허니까, 그 강두식 씨가 허는 말이

“한흘은예. 일로 영 구작 (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킴) 올라가민 한흘, 한흘.  
(웃음).”

**[조사자]** (웃음)

**[제보자]** 경 헹 노니까 그 물은 말은 뭔고 허게 뭐든.

“헤에 그것사 모릅니까.”

“무사 잘 알면서 그렇게 물어봅니까.”

이렇게 헤난 그 아주 재미난 농담거리, 전설에 남아 있습니다. 전설.

**[조사자]** 진짜 전설인게마씨.

**[제보자]** 우리 어린 때 신촌 살 때 한흘 한흘 허민 아이고, 하늘이여 하늘, 하늘로만 알았지. 무을 생각을 안 허연.

- 핵심어 : 한흘, 하늘, 논흘, 강두식, 와흘리, 대흘리